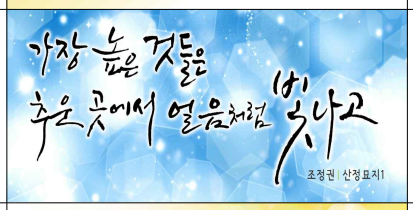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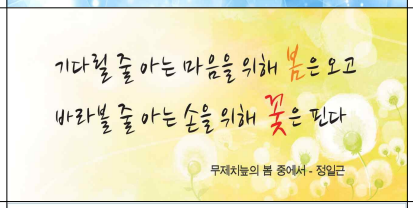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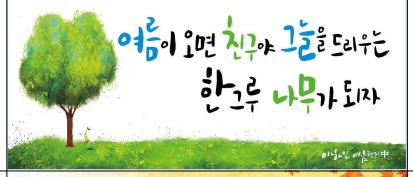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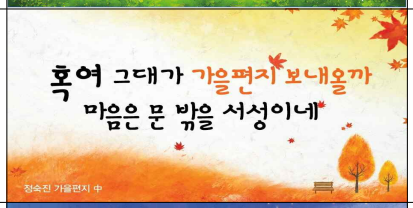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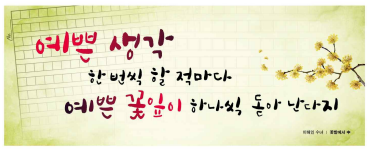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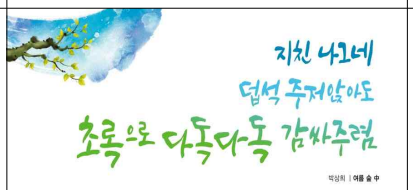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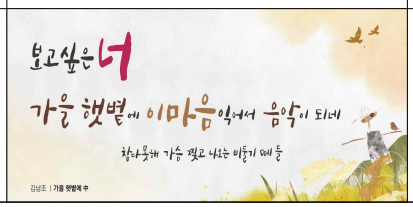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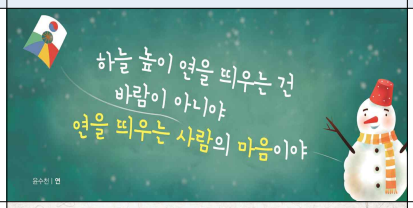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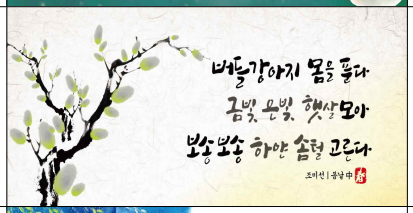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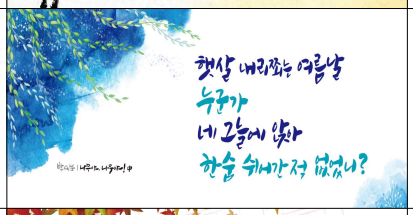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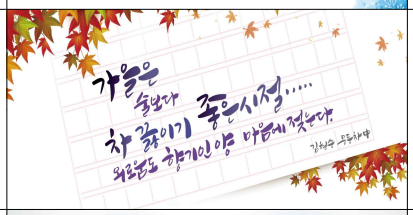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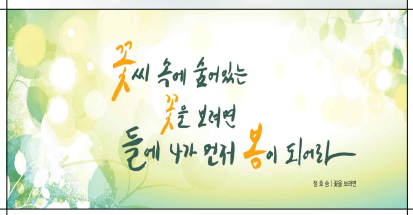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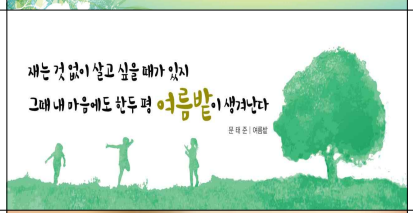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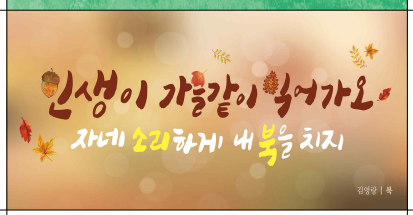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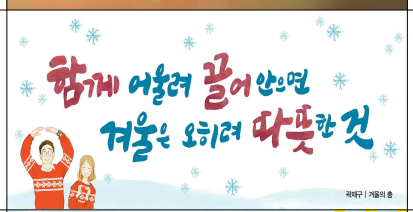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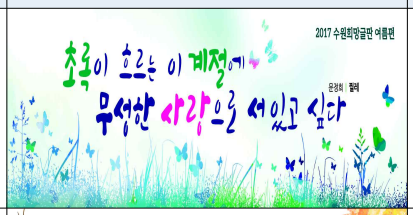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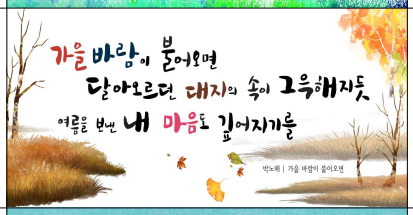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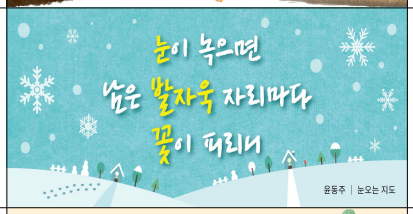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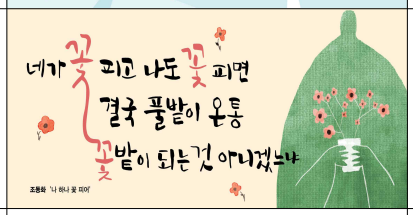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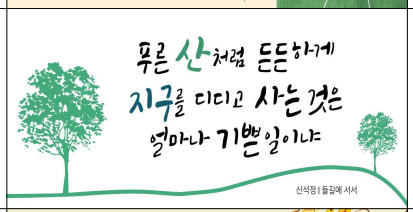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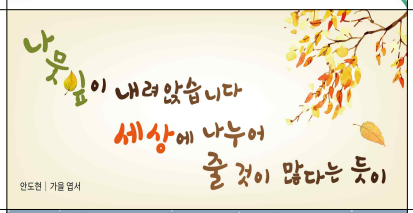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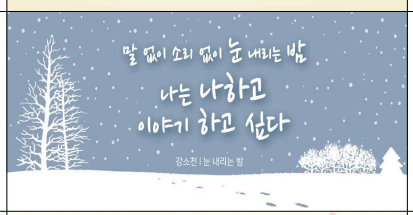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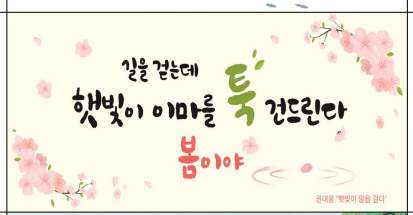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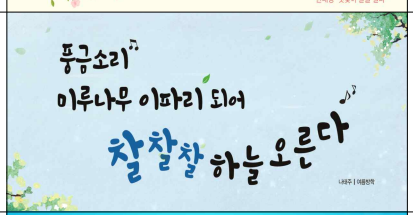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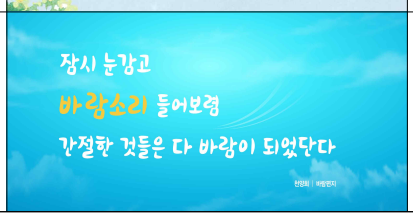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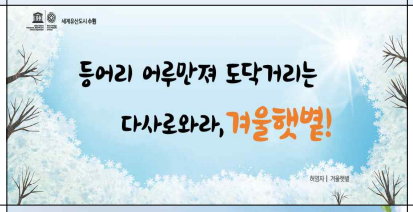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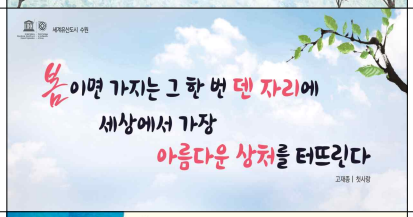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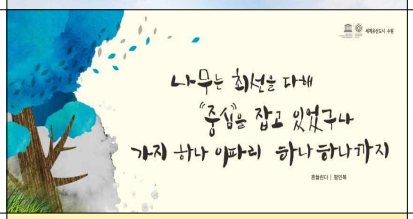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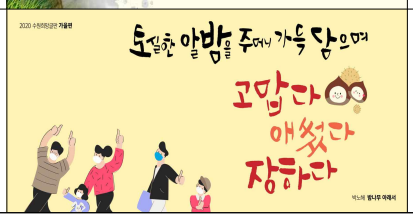
【붙임3】

수원희망글판 역대 선정작 (총33회)

연번	시 기	디 자 인	문 구
1	2012 가을 (고은)		가을 크다 가을은 올 시간보다 가버린 시간이 더 크다 - 고은 / 회상 -
2	2012 겨울 (조정권)		가장 높은 것들은 추운 곳에서 얼음처럼 빛나고 - 조정권 / 산정묘지 1 -
3	2013 봄 (정일근)		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위해 봄은 오고 바라볼 줄 아는 손을 위해 꽃은 핀다 - 정일근 / 무제치늪의 봄 -
4	2013 여름 (이해인)		여름이 오면 친구야 그늘을 드리우는 한그루 나무가 되자 - 이해인 / 여름편지 -
5	2013 가을 (정숙진)		혹여 그대가 가을편지 보내올까 마음은 문 밖을 서성이네 - 정숙진 / 가을편지 -
6	2013 겨울 (마종기)		문득 가벼운 것들이 다가와 빛나는 눈꽃으로 나를 다듬어 주네 - 마종기 / 수원에 내리는 눈 -
7	2014 봄 (이해인)		예쁜 생각 한 번씩 할 적마다 예쁜 꽃잎이 하나씩 돋아 난다지 - 이해인/ 꽃밭에서 -
8	2014 여름 (박상희)		지친 나그네 덥석 주저앉아도 초록으로 다독다독 감싸주렴 - 박상희 / 여름 숲 -
9	2014 가을 (김남조)		보고 싶은 너 가을 햇볕에 이마음 익어서 음악이 되네 참다 못해 가슴 찢고 나오는 비둘기떼들 - 김남조 / 가을 햇볕에 -

연번	시 기	디 자 인	문 구
10	2014 겨울 (윤수천)		하늘 높이 연을 띄우는 건 바람이 아니야 연을 띄우는 사람의 마음이야 - 윤수천 / 연 -
11	2015 봄 (조미선)		버들강아지 몸을 푼다 금빛 은빛 햇살모아 보송보송 하얀 솜털 고른다 - 조미선 / 봄날 -
12	2015 여름 (박예분)		햇살 내리쬐는 여름날 누군가 네 그늘에 앉아 한숨 쉬어간 적 없었니? - 박예분 / 나무야, 나무야 -
13	2015 가을 (김현승)		가을은 술보다 차 끓이기 좋은 시절..... 외로움도 향기인 양 마음에 젖는다 - 김현승 / 무등차 -
14	2015 겨울 (신경림)		눈에 덮여도 먼동은 터오고 바람이 맵찰수록 숨결은 더 뜨겁다 - 신경림 / 정월의 노래 -
15	2016 봄 (정호승)		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- 정호승 / 꽃을 보려면 -
16	2016 여름 (문태준)		재는 것 없이 살고 싶을 때가 있지 그때 내 마음에도 한두 평 여름밭이 생겨난다 - 문태준 / 여름밭 -
17	2016 가을 (김영랑)		인생이 가을같이 익어가오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치지 - 김영랑 / 북 -
18	2016 겨울 (곽재구)		함께 어울려 끌어 안으면 겨울은 오히려 따뜻한 것 - 곽재구 / 겨울의 춤 -
19	2017 봄 (도종환)		우리의 미래는 불에탄 나무에서 다시 솟는 연둣빛 새순 - 도종환 / 희망의 이유 -

연번	시 기	디 자 인	문 구
20	2017 여름 (문정희)		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있고 싶다 - 문정희 / 찔레 -
21	2017 가을 (박노해)		가을바람이 불어오면 달아오르던 대지의 속이 그윽해지듯 여름을 보낸 내 마음도 깊어지기를 - 박노해 /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-
22	2017 겨울 (윤동주)		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- 윤동주 / 눈오는 지도 -
23	2018 봄 (조동화)		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- 조동화 / 나 하나 꽃 피어 -
24	2018 여름 (신석정)		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일이냐 - 신석정 / 들길에 서서 -
25	2018 가을 (안도현)		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줄 것이 많다는 듯이 - 안도현 / 가을엽서 -
26	2018 겨울 (강소천)		말 없이 소리 없이 눈 내리는 밤 나는 나하고 이야기 하고 싶다 - 강소천 / 눈 내리는 밤 -
27	2019 봄 (권대웅)		길을 걷는데 햇빛이 이마를 툭 건드린다 봄이야 - 권대웅 / 햇빛이 말을 걸다 -
28	2019 여름 (나태주)		풍금소리 미루나무 이파리되어 찰찰찰 하늘 오른다 - 나태주 / 여름방학 -
29	2019 가을 (천양희)		잠시 눈감고 바람소리 들어보렴 간절한 것들은 다 바람이 되었단다 - 천양희 / 바람편지 -

연번	시 기	디 자 인	문 구
30	2019 겨울 (허영자)		등어리 어루만져 도닥거리는 다사로와라, 겨울햇볕! - 허영자 / 겨울햇볕 -
31	2020 봄 (고재종)		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뎬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- 고재종 / 첫사랑 -
32	2020 여름 (함민복)		나무는 최선을 다해 중심을 잡고 있었구나 가지 하나 이파리 하나하나까지 - 함민복 / 흔들린다 -
33	2020 가을 (박노해)		토실한 알밤을 주머니 가득 담으며 고맙다 애썼다 장하다 - 박노해 / 밤나무 아래서 -